

광주서 배운 인권 미안마에 심는다

5·18 30+1년

새로운 30년을 위하여

<1> 필리핀 인권운동가 만나 멀린독

5·18 광주민중항쟁이 올해로 31주년을 맞는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았을 때 2011년은 5·18의 '새로운 세대'를 향한 첫 걸음인 셈이다. 5·18의 지난 30년은 책임자 규명과 희생자 보듬기, 역사적 의의 정립에 초점이 맞춰졌다. 발표 명령자와 희생자 모두의 종적을 밝히지 못한 미진함도 남아 있지만 2011년의 5·18은 또다른 30년의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다. 새로운 30년의 방향과 가치에 대해 집중조명 한다.



미안마 난민캠프 '라이트 스쿨'에서 수업중인 안나 멀린독(여·29·왼쪽 네 번째)씨.

난민촌에 학교 열어 5월 정신 교육

"광주 정신은 미안마 난민촌은 물론,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고 있는 다른 아시아 민족들에게 값진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안마(옛 버마) 인권운동가 안나 멀린독(Anna Malindog·여·29·필리핀)씨는 광주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5·18 민중항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2007년 제3회 광주아시아 인권학교를 수료한 안나씨는 태국 방콕에서 북서쪽으로 500km 떨어진 미안마 난민캠프에서 5월 정신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녀는 난민캠프에 '라이트 스쿨'(Light school)을 세운 뒤 전쟁 난민 등의 자녀 150명을 대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수업 교재 중 하나는 5월 정신이 담긴 민주교육 교재다.

이 교재에는 5월의 역사적 배경·의미·정신 등이 담겨 있다. 안나씨는 광주 인권학교를 수료한 뒤 2008년부터 미안마 어린이들에게 '주인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광주 오월 이야기를 교재로 채택했다.

안나씨는 "처음에는 아이들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조차 몰랐는데, 3년이 지난 지금은 민주·인권·평화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된 것 같다"며 "최근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용산 수지 여사의 가택연공 해체 소식을 전해줬더니, 아이

들이 매우 기뻐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미안마도 민주국가로 우뚝 서길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지 여건상 교재 구하기가 어렵고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은 점이 큰 고민이다. 따라서 그녀는 올해 말까지 광주 인권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각종 서적 등을 참고해 5·18 관련 교재를 현지어로 만들어볼 계획이다.

안나씨는 "버마도 세계적인 민주·인권국가로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도 감내한 채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이들이 커서 향후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뜻깊은 일을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31주년을 맞는 5·18 민중항쟁은 아시아 민주·인권운동의 좋은 본보기라고 했다. 4년 전 광주 인권학교에서 민주·인권운동에 대해 공부하면서 광주의 민주화운동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됐다.

"광주시민들을 보면서 민주화의 첫 발걸음은 '열린'과 '갈망', 그리고 '대중정신'이라는 것을 느꼈다"는 안나씨는 "이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정신이다. (내가) 5·18 관련 교재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홍행기자 golee@kwangju.co.kr



"은 누리에 자비를"

불기 2555년 석가탄신일을 이틀 앞둔 8일 오후 광주공원 앞 광주천변에 야기 부처와 물고기 등 갖가지 형상의 연등이 설치돼 봉축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5·6 개각 호남은 없었다

집권 여당의 4·27 재보선 패배 이후 단행된 개각에서도 호남 인맥의 중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일 기획재정부 장관에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서규원 전 농림부 차관을 내정하는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환경부 장관에는 유영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이채필 노동부 차관, 국토해양부 장관에는 권도엽 전 국토부 1차관을 선임했다.

기획재정 박재완

농림수산 서규원

환경부 유영숙

고용노동 이채필

국토해양 권도엽

이번 개각은 4·27 재보선 패배로 흐트러진 집권 4년차 국정운영의 추진력을 실무 중심의 '전문가 체제'로

되찾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5명의 장관 내정자 가운데 박재완 장관(경남), 이채필 장관(울산), 권도엽 장관(경북) 등 3명이 영남 출신인 반면 호남 출신은 단 한명도 중용되지 않았다.

이번 개각으로 광주·전남 출신은 김형식 국무총리와 이귀남 법무부 장관만 남게 됐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오는 7월 교체될 예정이어서 최악의 경우 광주·전남지역 출신 장관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임동욱기자 tuim@

상무소각장 이르면 2013년 폐쇄

남구 양과동에 고체 연료화 시설 건립 폐기물 정책 '소각·매립'서 '자원화'로

광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고체연료화하는 방안이 구체화되면서 그동안 각종 민원을 불러일으켜 왔던 상무소각장이 이르면 2013년 개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와 분뇨 등으로부터 메탄가스를 만들어내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오는 2012년 말까지 유덕동 하수처리장 내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폐기물을 땅에 묻거나 태워 없애버렸던 광주시의 폐기물 처리정책이 '폐기물의 자원화'로 전환하는 중대한 계기를 맞게 됐다.

광주시는 8일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에 오는 2013년까지 각종 생활쓰레기를 고체 연료화하는 RDF(Refuse Derived Fuel) 생산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인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건립되는 RDF 생산시설은 광주지역 생활쓰레기 하루 발생량 900t 중 750t을 고체 연료화하게 된다. 이 시설은 특히, 상무소각장에서 처리되는 하루 250t의 가연성 쓰레기도 고체 연료화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상무소각장은 2013년 또는 2014

년차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서구 유덕동 하수처리장 내에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분뇨 등을 이용해 메탄가스를 하루 최대 7만t까지 생산하는 바이오가스(Bio gas) 생산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오는 2012년 말까지 건립한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상무지구 인근 26개 기관에 냉·난방을 공급해 온 CES(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회사의 에너지원으로 제공되며, 남은 일부는 청초차량 등의 연료로 제공돼 연간 8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광주시는 또 하루에 40t(연 1만 4000t)이 발생하는 폐목재를 잘게 부숴 우드칩(Wood chip)으로 만들어 연료화하는 '폐목재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사업을 공기업의 협조를 받아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생산된 우드칩은 화력농가 등에 공급돼, 높은 유가로 고전하는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목재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국비 1500억원을 들여 오는 2014년까지 '도시광(鐵)산기술훈'을 건립하고,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재활용선별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광조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RDF 생산시설이 가동되면 현재 상무소각장에서 처리 중인 폐기물이 모두 원료로 사용됨으로써 상무소각장 폐쇄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게 된다"며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통해 자원순환형 도시건설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

박지원 원내대표 당권 도전 시사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말 전 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인터뷰 5면>

박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권 도전 여부와 관련, "정권 창출과 재창출을 이뤄낸 경험이 있다"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정권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아직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지 않아 당권 출마 여부를 거론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며 "오는 6월, 최종적으로 당권 도전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될 것"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사실상 당권 도전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조기에 점화되는 것은 물론 복잡하게 얽힌 대권과 당권 구도도 점차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안심을 더하겠습니다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후 원전 안전점검단을 구성, 국내 2기 전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과 고리1호기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우리나라의 모든 원전은 한반도에서 예상되는 최대 규모의 지진과 해일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고리1호기도 정밀안전점검 결과 계속운전에 적합하여 재가동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전 원전이 대지진과 쓰나미 같은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디젤발전기, 최신형 수소 제거설비, 비상냉각수 외부 주입로 등 관련 설비를 보강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 안전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